



##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첨병

### Seosan Solar Power Plant

Hyundai E&C goes into its second challenge in the Seosan reclamation site. The builder is work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Seosan photovoltaic power station in the area reclaimed in the 1980s. The Seosan solar power plant project is considered the company's first and the country's largest solar power plant as well as the country's first 154 kV power transmission system. The construction site is accelerating its effort for the project in an aim to complete it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 Continued on page 6, 7

현대건설이 서산 간척지에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1980년대 간척사업으로 탄생한 땅에 자체 사업으로 서산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나선 것이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는 현대건설 최초 및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로, 국내 태양광 발전소 최초 154kV 송전 방식 도입 등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며 2019년 상반기 준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 **▶** 관련기사 6, 7면

## Hyundai E&C ranked world's no. 1 sustainable builder for six consecutive years



Hyundai E&C has been selected as the Industry Leader in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industry of the 2018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for six consecutive years, the first among global builders.

In the 2018 DJSI released on September 13, Korea's primary builder has marked the ninth year in a row since 2010 that it has been included in the DJSI World rating. The builder has been ranked the world's most sustainable builder in the latest DJSI, beating its global competitors such as Spain's Ferrovial, Germany's Hochtief and France's Vinci.

Hyundai E&C has been chosen in recognition of its sustainability i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aspects as well as the economic categories. Notably, its business-related scores remarkably increased compared to last year. The economic categories include governance, risks, business ethics and customer management. The builder achieved high scores in the categories such as management of supply network and policy effects.

DJSI is a globally recognized sustainable investment index published by S&P Dow Jones Indices, together with RobecoSAM. DJSI selects the top 10 percent of the largest 2,500 global companies by market capitalization as the DJSI World from a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perspective.

##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글로벌 건설사 최초 6년 연속 '1위'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

현대건설이 업종 우량기업을 선정하는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평가에서 글로벌 건설사 최초로 6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업종 1위 기업(Industry Leader)'으로 선정됐다.

9월 13일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9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된 동시에 글로벌 톱 건설사인 스페인의 페로비알(Ferrovial), 독일의 호치티프(Hochtief), 프랑스의 방시(Vinci) 등을 제치고 세계 정상을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경제 부문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르게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경제 부문 점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경제 부문은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비즈니스 윤리 ▶고객 관리 등을 평가하는데, 특히 현대건설은 ▶공급망 관리(협력사 ESG 평가 실시 등) ▶정책 영향 부문(정책성 지원비용 공개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올해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LG전자가 각각 업종의 '업종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투자 전문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RobecoSAM)'이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발표하는 지속가능 투자 지수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상위 10%의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을 선정해 'DJSI World'를 부여한다. DJSI 평가결과는 국제적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Our company provides about 200-billion-won financial support programs

### To help subcontractors ease financial problems

Our company takes the lead in promoting win-win growth with our subcontractors by providing the largest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programs valued at a total of 202 billion won include the Win-win Growth Fund (100 billion won), the Supply Chain Finance (72 billion won) for subcontractors entering the global market in cooperation with Hyundai E&C, and the direct financial aid (30 billion won).

Our company sets out to help the subcontractors pay their interest by expanding the Win-win Growth

Fund. We are planning to increase the amount of the fund operated by banks to up to 100 billion won and to make use of operation profits to cut down on interest costs imposed on the subcontractors by over one percent.

In addition, our company aims to help the financially strapped medium- and small-sized builders finance themselves at a lower interest rate in the overseas markets by offering global banks with credit guarantee. We will increase the size of the related financial program to 72 billion won. Hyundai E&C will



also support the subcontractors suffering from temporary shortage of funds with about 30 billion won interest free.

Moreover, our company will

make an early payment of 100 billion won for about 500 vendors prior to the *Chuseok* holiday, one of the country's biggest holidays, in order to ease their financial burden.

## 현대건설, 업계 최대 2000억원 규모 협력사 금융지원 나선다

### 협력사 자금난 해소 지원 ... 상생협력 체계 지속적 구축

우리 회사가 건설업계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다. 이번 금융지원은 ▶동반성장펀드 1000억원 ▶해외 동반 진출업체 대상 금융지원 720억원 ▶직접자금 지원 300억원 등 총 2020억원 규모다.

먼저 우리 회사는 동반성장펀드 운영 규모를 확대해 협력업체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우리 회사는

은행의 자금 운용 규모를 1000억원 까지 늘려 그 운용 수익으로 협력업체에 1% 이상의 이자 절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2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건설의 신용을 사전 연계한 글로벌 은행에 제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해외 진출 중

소 건설사가 낮은 금리로 현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무이자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우리 회사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500여 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100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운영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의 힘든 재무 상황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다”며 “우리 회사가 가진 업계 최고의 재무 역량을 협력사와 공유해 업체의 재무 흐름을 개선시키는 등 성공적인 상생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3M 경영진 본사 방문

글로벌 기업 3M의 James L. Baurman 부회장(인더스트리얼 사업본부 총괄), Tamie Minami 사장(아시아 총괄) 등 관계자 6명이 9월 12일 서울 계동 본사를 방문했다.



3M 경영진은 본사 5층 VIP룸에서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 김인수 부사장, 박두일 전무, 이석홍 전무, 이영철 전무 등 경영진과 면담을 했다. 이날 양사 경영진은 ▶실증·적용 중인 R&D 협력 현황 공유 ▶안전솔루션·기업문화 벤치마킹 ▶Open Innovation 워크숍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사는 기존에 진행 중인 건축 내외장재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공동연구 분야 발굴 ▶3M 솔루션 현장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3번째 H-시리즈 ... 보이는 초인종 'H-벨(H-Bell)'

우리 회사가 2018년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 'H-시리즈'의 세번째 제품인 'H-벨'을 선보인다.



'H-클린현관' (7월), 'H-드레스웨어' 및 'H-스터디룸' (8월)에 이은 보이는 초인종 'H-벨'은 세가지 LED 빛과 소리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알림이 가능하다.

분양예정 사업지에 우선 적용한 뒤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고객이 직접 월패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 종류(빛·소리), 신호(컬러 변화·깜박임), 위치(거실·안방)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는 'H-벨'은

회사 관계자는 “'H-벨'은 청각과 지각 능력이 부족한 노인, 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포고촌 물류시설 수주

우리 회사가 9월 7일 820억원(VAT 제외) 규모의 김포고촌 물류시설을 수주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75번지 일대에 위치한 현장은 연면적 13만6904㎡, 지하 1층~지상 4층 1개 동 규모의 상온·저온 창고를 짓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16개월이다.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연결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AMB 항공화물창고·동남권 물류단지 등을 시공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물류시설 수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퀀달스퀘어엘피김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김포고촌 물류시설은 김포고촌 물류단지 내에 있어 서울 도심에 인접해 울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 9월 '핵심가치 오픈 클래스'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9월 11일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핵심가치 오픈 클래스'를 진행했다. 양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는 정경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 소장이 '바리톤 정경의 성악 콘서트-3류가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90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소장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과 오페라를 친근하게 소개해 임직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4년부터 '핵심가치 오픈 클래스'를 진행해



임직원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쌓고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정동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종범 야구해설가 등을 초빙해 오픈클래스를 진행한 바 있다.

## 그룹사뉴스

### 현대자동차그룹 추석 연휴 협력사에 납품대금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235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369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추석 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이웃 및 결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현대·기아자동차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현대·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 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자동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 개 오토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PHOTO NEWS

### 사우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우리 회사가 9월 12일 본관 1층 로비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 포토존 촬영 ▶금연 프로그램 설명/상담 등 임직원의 금연 독려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금연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우들은 8~12주 혹은 6회 이내의 진료와 상담으로 구성된 금연치료를 1년에 3차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Nature shows off its brilliance at Baekdu Daegan: Asia's largest arboretum is home to plants and tigers

Sept. 15

The biggest arboretum in Asia sits in Korea, upon a peaceful mountain range in Bonghwa County, North Gyeongsang. The Baekdu Daegan National Arboretum opened its doors in May, stretching across an area of 15 square kilometers (3,706 acres) - twice the size of Jongno District in central Seoul. Since it opened, the arboretum has seen over 110,000 guests as of early September, despite its distance from the capital. Inside the vast space are some 2,000 different species of plants sitting in 27 separate exhibit zones.

### Tiger power

One thing that should not be missed at the arboretum is the fact that it is the home of an animal species you may not expect to see in a peaceful mountainside: three Siberian tigers. The three tigers - 17-year-old Duman, 13-year-old Hancheong and 7-year-old Uri - were adopted from Seoul Grandpark and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now live on 4.8 hectares of land - seven times the size of a football field. Duman, whose age is equivalent to 85 in humans, has lost his eyesight, and is kept in a separate field far from the reach of any outsiders. If you'd like to see them relatively energetic, then the best times to visit are early in the morning or in the late afternoon. Hancheong and Uri leave their indoor habitat at



9:30 a.m. and make their way back at 5 p.m. These times are when visitors can see the two walking gracefully through the scenic Baekdu mountain range.

### Fully informed

With a total of 27 different exhibits, it is understandably difficult for visitors to choose where to go, but thankfully guided tours are available for those in need. Different tours take visitors around the arboretum centering on different themes such as "Going to the Tiger Forest," "Wetlands Embrace Life" or "The Scented Journey Through the Arboretum."

"The water lily blooms at night and closes its petals during the day," said guide Park Yeong-rae. The tour featured different species of water lilies from around the world, with some 100 different flowers flaunting their beauty. The Victoria water lily is particularly eye-catching, with its leaves that can weigh up to 15 kilograms (33 pounds).

### The perfect tour

The free tram runs every 10 to 15 minutes, starting from the information center in the front of the park, driving all the way into the deepest corner of the arboretum then back to the entrance. But the tram doesn't stop in front of every single exhibit there is. Some paths may even include an uphill trek, which may not be easy for the younger or older visitors. The autumn foliage exhibit is perhaps the most promising spot for the upcoming cool season. Many species of trees that turn color stand gracefully, dressed in hues of green, red and yellow. It will also be the best spot for photos.

The Baekdu Daegan National Arboretum is closed every Monday. It is a three and a half hour drive from central Seoul's City Hall. Admission is 5,000 won (\$4.46) for adults and 3,000 won extra for the 90-minute guided tour program.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bdna.or.kr](http://www.bdna.or.kr)

By KOREA JOONGANG DAILY

## 'Searching' finds its way to the top

Sept. 11

In its second week, American film "Searching" shot to the top of Korea's weekend box office. The thriller grabbed second place in its debut weekend, but shot to No. 1 thanks to word-of-mouth. The movie follows a single father (Cho) desperately trying to find his missing teenage daughter Margot (Michelle La). After the lead detective on the case fails to find a lead for Mar-

got's whereabouts, David becomes suspicious of the people around him and decides to take things into his own hands. The film has garnered attention for its unique storytelling and for featuring Asian-Americans in its lead roles. The movie is portrayed through digital interfaces and audiences follow along as the characters interact through computer screens and smartphones.

By KOREA JOONGANG DAILY



## Hyundai Motor Presents First Look at New Truck with a Fuel Cell Powertrain

Hyundai Motor today presented a first look at a render image of a new truck with fuel cell powertrain which is set to be launched in 2019. After the ix35 Fuel Cell and the NEXO, Hyundai presents yet another milestone for its leadership in fuel cell technology with the presentation of the fuel cell electric truck. Fuel cell electric truck boasts distinctive design which sets it apart from other Hyundai commercial



vehicle line-up. The truck aims at simple and clean design which is also aerodynamically efficient with a spoiler and side protector.

## Hyundai CRADLE Expands Ecosystem of Mobility Partners

Hyundai CRADLE, Hyundai Motor Company's corporate venturing and open innovation business, invests in Migo, a leading privately held Mobility-as-a-Service (MaaS) company based in Seattle that has developed an on-demand ride discovery application. The investment expands Hyundai's existing portfolio of mobility and technology partners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s that will enhance the customer transportation



experience. Migo is a free app that allows customers to discover and hail multiple modes of personal transportation.

### 10 Minute Korean Lessons

#### Getting Around

##### ▶ Taking a taxi

People who are not fluent in Korean often complain that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taxi drivers in Korea. It is probably best to show the driver an exact address since all taxis have GPS. By using the "Kakao Taxi" application, you can submit a trip request in advance so the driver will already know your destination before you get in the car.

##### ▶ Related phrases

명동 가요?

Do you go to Myeongdong?  
Myuhng-dong gah-yo?

여기로 가 주세요.

Please take me to this place,  
(while pointing out your destination on a map or showing the driver the address)  
Yuh-gee-ro gah joo-seh-yo.

홍대입구역 가 주세요.

Please take me to Hongik University Station.  
Hong-day-eep-ggoo-yuhk-gah-joo-she-yo.

강남우체국 옆에 있어요.

It is next to Gangnam Post Office.  
Gahng-nah-moo-cheh-gook-yuh-peh-ee-ssaw-yo.

교통카드로 할게요.

I will pay with a transportation card.  
Gyo-tong-kah-deu-ro-hahl-ggeh-yo.

여기서 우회전이요.

Please make a right here.  
Yuh-gee-saw woo-hweh-jawn-ee-yo.

##### ▶ Other expressions

좌회전

Left turn  
jwah-hweh-jawn



직진

Go straight  
jeek-jjeen



우회전

Right turn  
woo-hweh-jawn



여기서 세워 드릴까요?

Do you want me to drop you off here?  
Yuh-gee-saw seh-wo deu-reel-ggah-yo?

네, 여기서 세워 주세요.

Yes, Let me out here, please.  
Neh, Yuh-gee-saw seh-wo joo-seh-yo.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http://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1 전국을 세시간 생활권으로 만든 한국형 고속철 KTX산천, 2 현대로템 창원공장, 3 차륜형장갑차 주행 모습, 4 현대로템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5 2013년 포드 인도 공장에 납품한 프레스 설비, 6 현대로템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설비를 담당했다.



1



3

## 철도·방산·플랜트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종합중공업기업, 현대로템

**그룹사 바로 알기** ⑤ 현대로템 철도, 방산, 플랜트 등 3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현대로템. 200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현대로템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단시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종합중공업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글·사진=현대로템 홍보팀 배남의 대리

1977년 7월 1일 현대정공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자기부상열차, 전동차 등 철도차량과 신호통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 유일의 철도차량 및 시스템 제작 회사다. 철도 외에도 지상 전투력의 중심인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등 방위사업을 비롯해 자동차 및 제철 설비 등 다양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의 국내 공장은 경남 창원, 충남 당진, 경기도 의왕에 위치해 있다. 창원 공장에서는 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방산 제품과 연간 800량의 철도차량을 생산한다. 당진의 플랜트 공장에서는 초대형 프레스와 운반 설비, 제철 설비 등 각종 플랜트 제품이 나오고 있다. 의왕 소재의 전장품 공장에서는 철도차량의 핵심 전장품인 추진제어장치, 견인전동기, 열차종합 제어관리장치(TCMS) 등을 제작한다. 해외 생산 기지로는 각각 연 100량과 200량의 철도차량이 생산되는 터키 아다파자리(Adapazari)와 브라질 아라라쿠아라(Araraquara)가 있다.

### 철도 세계가 주목하는 철도중공업

현대로템의 철도사업 해외 진출은 1973년 대만에 화차를 수출하면서부터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대로템은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객·화차와 디젤기관차, 디젤동차(Diesel car)를 공급하는 수준이었다. 90년 중반 대만에서 통근형 전동차 340량과 디젤동차 400량 등 6억 달러 상당의 물량을 연속 수주하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현재는 철도차량의 모든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철도중공업으로 미국·호주·브라질·터키·인도 등 세계 36개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 환경에 맞서 철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과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2008년경 전국을 세시간 생활권으로 만든 한국형 고속철인 KTX산천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는 세계 네번째다. 그 후 2012년에는

430km/h급의 동력분산식(각 객차마다 동력 배치) 차세대 고속전철 해무(HEMU-430X)를 개발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코레일로부터 동력분산식 고속철을 국내 최초로 수주했다. 동력분산식 고속철은 세계 고속철 시장 진출에 유리한 모델로 향후 국산 고속철의 첫 해외 진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 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인 도심형 자기부상열차를 출시,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잇는 노선에 적용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또한 별도의 전력선 없이 배터리 충전을 통해 운행이 가능한 유/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장 트램을 개발하는 등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뿐 아니라 신호 및 통신 시스템, 철도 운영, 유지·보수 등 철도산업 전 분야에 걸쳐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철도시스템 회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신호시스템을 수출한 데 이어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인 서울시 9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 인천 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사업 등 E&M(Electrical & Mechanical) 턴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2016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지하철 턴키 사업 수주를 토대로 E&M 분야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한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유지·보수, 철도시스템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방산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장비를 생산하다

현대로템은 76년 전차 생산 전문 방산업체로 지정된 후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으로서 최신훈에 지상 장비의 국산 개발 및 전력화를 통해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주력 제품군은 전차다. 현대로템은 84년 K1전차 개발을 시작으로 1997년 K1A1전차, 2008년 세계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은 K2전차 개발까지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장비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K2전차는 독일 등 선진 전차대국을 제치고 2008년 터키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은 2012년 차륜형장갑차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차륜형장갑차는 차체 공용화를 통해 대공포, 지휘소 등 계열 차량으로 확대할 수 있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외에도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과 무인무기체계 등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미래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 플랜트 프레스공장·일관제철소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79년 플랜트 사업을 시작한 현대로템은 독자적인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성을 기반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GM, 포드, 르노-닛산 등 생산 공장에 대형 고속 프레스를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설비 풀라인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프레스(Press)부터 차체·도장·디자인 설비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로템은 2005년 9월 국내 최초로 유럽 CE(Communaut European) 규격에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인 5400t 자동차 패널(Panel) 생산용 프레스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독일과 일본 업체가 양분하던 초대형 프레스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포드사에 자동차 생산 설비를 수출했다. 이는 자동차 내·외관 생산용 대형 고속 프레스 2개 라인과 운반·설비 등 풀라인을 공급하는 9000만 달러 규모였다.

또한 현대로템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1, 2, 3기의 설비를 담당했다. 일부 설비를 설치한 고로 제1, 2기와 달리, 제3기에는 철광석을 녹여 선철을 제작하는 '제선', 선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을 만드는 '제강', 고온/상온의 금속 재료를 회전하는 2개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의 재료로 가공하는 '압연' 등 일관제철소(제선·제강·압연 등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 풀라인을 공급했다. 당진제철소 고로 1, 2, 3기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현대제철은 국내 최초 민간 일관제철소로 발돋움했으며, 현대로템 역시 종합 플랜트 회사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4



5



6

# 오늘의 혁신이 '더 나은 미래' 만든다! 2018 현대건설 혁신대상

2011년부터 시행된 현대건설 혁신대상이 어느덧 8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제출된 73개 출품작(조직 47, 개인 26) 중 1·2차 심사를 거쳐 조직·개인 부문 총 12개 과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요 수상작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하는 '2018 변화와 혁신리더스 대상'에 출품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글·정리=박현희



## 대상 상생협력 문화 및 하도급 Compliance 정착을 위한 전사적 협력체계 구축 조직 외주실 글로벌상생팀

**Q 현대건설 혁신대상 대상을 축하합니다.**  
영광인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각종 지표의 반전은 재경본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상 또한 여러 부서를 대표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Q 과제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최근 공정거래와 관련해 대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철저한 하도급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많이 받으면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혁신대상 과제를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전사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잡았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부서만의 노력이 아닌 전사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부서의 협력 덕분에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상생펀드 대출상담회 개최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협력사 임직원 복지서비스 제공 ▶우수협력사 해외 현장 방문 실시 등 다채로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당특약, 정산 지연 방지를 위한 신규 시스템 도입 등 하도급법 준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타사에서는 공정위 신고·사건

수가 증가한데 반해 우리 회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에는 업계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듬해에는 우리 회사 최초로 동반성장 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정거래 협약평가'와 '동반성장 지수' 최우수 등급에 도전합니다. 팀 전원이 2019년을 기대하고 있고 (웃음).

**Q 함께 수고한 직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우리 팀 대관 파트 직원들은 공정위 관련 업무와 각종 상생협력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는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쁩니다. 유관부서에서도 내 일처럼 신경 쓰고 도움을 준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개선된 성과들을 잘 엮어 내년 '동반성장 지수' 등급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우리 회사의 동반성장 의지를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협력사 맞춤형 홍보를 통해 참여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협력사 로열티(Royalty)를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현대건설이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협력사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 사회적으로는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 현대건설 혁신대상 대상을 수상한 글로벌상생팀 최영기 팀장(오른쪽 다섯째)과 팀원들. 이들은 "여러 부서가 내 일처럼 신경 쓰고 도움을 준 덕분에 대상 수상이 가능했다"며 유관 부서 사람들에게 공을 돌렸다.

## 최우수상 태양광 활용 장치 개발로 주거 및 사무환경 개선 개인 한희현 차장\_HDO SDA Project 현장

햇빛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이며, 인간에게 필수적인 천연 에너지원입니다. 태양광 활용 장치는 "햇빛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바라기 블라인드(태양광 활용 장치)는 실내에 유입되는 햇빛을 자동제어해 원하는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장치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기술'이죠. 해바라기 블라인드를 이용하면 여름철에는 복사열 유입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북쪽에 위치한 방에서도 햇빛을 쬐 수 있으며, 창가에 비치해야 했던 화초나 빨래건조대를 실내 어디에나 비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기술은 특허청이 주최한 '2014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2018 현대차그룹 사내스타트업 공모전'에도 결승에 오르는 등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 한희현 차장.

## 최우수상 LNG Tank 기초공법 변경(분리형 기초)을 통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조직 쿠웨이트 알주르 엘엔지 수입항 건설공사 현장+ 기술솔루션실 솔루션1팀

쿠웨이트 알주르 엘엔지 수입항 프로젝트에는 소구경(小口径) 무철근 말뚝을 이용한 분리형 기초공법\*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분리형 기초공법은 기초공사시 말뚝과 상부 구조물을 분리합니다. 또 하중전이층(Load Transfer Platform)을 이용해 말뚝과 지반이 함께 수직 하중을 지지하고, 지진시 구조물과 말뚝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을 저감시킵니다. 지진시 수평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高價)의 고강성 말뚝기초를 사용해야 하는 기존 말뚝기초 공법과 달리 분리형 기초공법은 비교적 공정이 단순합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는 공기를 2.8개월 단축하고 비용 절감(2700만 달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알주르 엘엔지 수입항 현장 전경.

\*기초공법: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시공법.

## 최우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조직 인프라투자개발실 인프라운영개발팀

서산 태양광 발전소는 창업주의 도전정신으로 개척한 충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일대의 유휴 간척지 99만3000㎡(29만 평)에 65MW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국내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6월(예정) 상업운영에 들어가면 2만2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량의 2배 가까운 전력을 저장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육상 태양광에서 더 나아가 수상 태양광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발전소 운영사업 밸류체인(Value Chain) 기회를 확보했으며, 해외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

## 우수상 2018 현대건설 혁신대상 우수작

수상팀/수상자	과제명	
조직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특수장비(Floating Crane)를 활용한 시공공법 개선
	융복합기술혁신실 스마트건설팀	BIM 기반 초기 시공계획 플랫폼 개발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홍보실 문화홍보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기업문화 홍보 및 기업 이미지 이노베이션
개인	박경호 부장대우 / 인도네시아 Peusangan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V/O 극대화 통한 원가를 개선 및 고객 만족도 제고
	기주성 차장 / 토목지원팀	국내 공공발주공사 계약보증금 감면 추진
	홍세화 과장 / 안전기획팀	안전관리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한 참여안전 문화 조성
	박인선 차장 / 솔루션3팀	회전기계 엔지니어에서 기술클레임 전문가 '밀리언마일러' 프로젝트
김세원 차장 / 총무팀	해외 현장지역 지원 및 학계 네트워크 확대 위한 '해외 CSR 추진'	



**서산 태양광 발전소** 현대건설의 도전을 상징하는 땅, 서산 간척지 99만3480㎡(약 30만 평)에 우리 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자체 시공 개발사업이자 최초로 실시하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는 점, 태양광 발전소 최초의 송전 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글·김보나

# Hyundai E&C creates new driving force in solar power industry



**Technology**  
국내 태양광 발전소 최초의 154kV 송전 시설 구축  
Establish the first 154kV power transmission system among domestic solar power stations

**Ownership**  
발 빠른 사전 작업으로 공기 단축 및 주민들과 신뢰 형성  
Reduce construction schedule by taking prompt measures and build trust with residents

**Pride**  
국내 최대규모, 현대건설 최초의 태양광 발전 시설  
Korea's largest and Hyundai E&C's first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y

The Seosan reclamation program in the 1980s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rojects in the 70-year history of Hyundai E&C. In 2018, Hyundai E&C is making new history in the Seosan area once again: The builder is working on the construction of a photovoltaic power station in the 993,480-square meter land that remained unused due to its high salinity.

The Seosan photovoltaic (PV) power plant boasts the biggest PV power station in Korea. The builder aims to produce a total of 65 megawatts (MW) with 185,724 units of 350-watt PV modules, which amounts to power for about 22,000 homes in the neighboring area. The Seosan PV power plant project is designed to build a 154 kV substation within the power station and to directly transmit power to the Anmyeon substation operated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rough high voltage underground transmission cables. The Seosan PV plant project is garnering a lot of attention in the domestic solar power generation market as the 154 kV power transmission system is the first of its kind among domestic solar power stations.

As of now, 57.26 percent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finished. The construction site completed about 80 percent of the construction of solar panels and started to embark on electric installation last month. It will begin to establish the Energy Storage System (ESS) in October. The construction is slated to be completed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ESS enables solar power batteries to be charged in the daytime and to produce and transmit power at night.

As the Seosan PV power plant is the builder's first PV power station project, the construction site had to deal with difficulties due to a lack of designing and construction data. However, it made its all-out effort to reduce the construction period and manage construction quality in a thorough way by selecting subcontractors in advance, optimizing designs, supplying

construction materials in a timely manner, and minimizing interferences among different fields of construction.

The most daunting challenge facing the construction site is to conduct the 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under the sea designed to build a section of the 13-kilometer 154 kV power transmission line which crosses the Anmyeon Bridge.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drill the seabed vertically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construction site worked hard to bore about 500-meter ground at the depth of 22 to 25 meters from the surface of land below sea level. This method is considered the country's largest one in scale among domestic undersea 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projects for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To do this, the construction site spent a lot of time in confirming the project designs ranging from the construction method to the site for temporary work.

The construction site is also paying attention to win-win cooperation with the neighboring area. Hyundai E&C is taking the initiative in solidifying trust with residents to prevent any problems with qualit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in that the highly anticipated PV solar power plant will be under the direct operation of the builder for the next 20 years.

Renewable energy business is undoubtedly a global trend. The renewable energy market is growing fast in Korea. Since the Moon government was inaugurated last year, a new energy policy named "Renewable Energy 3020" has come to the for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national strategic plan, the country will increase renewable energy use by 20 percent by 2030. To line with this, Hyundai E&C established the New Growth Energy Team under the Energy Business Department of the Plant Division last year to enter stiff competition over solar power in the global renewable energy market.



1 서산 태양광 발전소 전경. 2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모습. 3,6 태양광 모듈 하부 구조물을 기반에 설치하고 있다. 4 에너지 저장 설비(ESS)가 들어설 건물. 5 태양광 모듈 약 18만5000여 장이 설치돼 있다.



## Interview

### 살신성인의 각오 다지다 현장소장 최동호 부장

10년간의 사무다이라비야 현장 생활을 접고 서산 태양광 발전소 현장 소장을 맡은 최동호 부장. 책임의 강에 어깨 무겁지만 경험 많은 사업수행팀 이해창 차장 등의 도움과 조인 덕분에 손조름게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최동호 현장소장은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차질 없이 성공적인 준공을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다. "지난 4월 도로굴착 심의 부결로 좌절하기도 했지만, 많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재심에 도전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지와 자부심으로 준공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선배님들의 위대한 업적과 견뎌도 부끄럽지 않도록 역할을 완성에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준공을 마치고 내년이 가족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 어떤 난관도 해결한다 사업수행팀 공사전기담당 공기석 과장

공기석 과장은 에너지 저장 설비와 변전소·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을 담당한다. 그야말로 공사의 핵심을 모두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광 모듈이 우리나라의 태풍과 폭설, 집중호우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공 방안을 모색했고, 뜻하지 않게 일반 지반을 만났지만 2만 개의 천공 작업 끝에 안정적으로 태양광 구조물을 시공했다. "154kV 초고압 변전소 및 에너지 저장 설비의 EPC를 경험하게 돼 뜻 깊습니다. 에너지 저장 설비 분야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리튬 이온 전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시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의 밝고 희망찬 새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대건설의 도전정신 새기다 사업지원팀 공무담당 이승진 대리

아랍에미리트 드미르 담수복합화력 발전소 공사 현장을 거쳐 2017년부터 서산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서 일한 이승진 대리는 예산 및 하도급 업체 계약, 자체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현장과 국내 현장의 환경이 달라 국내 하도급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호춘 차장의 지도 덕분에 업무를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우리 회사에서 처음 실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첫걸음에 합류하게 돼 기대와 자부심이 큼니다. 공기가 촉박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현대건설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해나겠습니다."



### 전기안전 전문가로 발돋움 하다 안전보건팀 안전담당 이창민 대리

이창민 현장 두 곳에서 전기 기자재 및 시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전기안전이요 일했던 이창민 대리는 2018년 1월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투입됐다. 변전소 및 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기 엔지니어로서의 자식을 심본 발휘해 국내 법규와 본사의 지침·규정을 직원들에게 세심하게 전하고 있다. "국내 현장과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생경해 하루하루 처음 겪는 상황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모든 일들이 큰 자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 회사가 보탬이 되는 전기안전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 영광입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일으키다

### 국내 최대 규모 및 최초의 154kV 송전 방식 구현

1980년대에 실시한 서산 간척사업은 현대건설 70년의 발자취를 대표하는 프로젝트로 꼽힌다. 서해안의 지도를 바꾼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다. 초당 8m가 넘는 서해의 물살 때문에 매립에 거둬 실패하다가 23만 1차리 초대형 유조선을 몰막이 공사 구간 근처에 가라앉혀 유수를 낮췄다. 프로젝트의 극적인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여의도 면적 5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됐다. 그리고 2018년, 우리 회사는 서산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간척사업 후 높은 염분 때문에 방치됐던 유휴지 99만 3480㎡(약 30만 평)에 우리 회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 회사 글로벌사업본부 인프라투자개발실은 2016년, 신재생 에너지가 점차 확대되는 환경에서 회사가 보유한 서산 부지로 눈을 돌렸다. 당시 서산은 국내 일사상 3위로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이었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을 추진하며 서산시,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쳤다. 마침내 2017년 3월 서산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고, 2018년 3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350W PV (Photovoltaic, 태양광) 모듈 18만5724장을 설치해 총 66MW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건 2만2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기존의 중소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22.9kV의 전압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했으나, 서산 발전소는 설비 내 154kV 변전소를 설치하고 초고압 지중선로 케이블을 통해 한국전력 안전 변전소에 직접 송전하게 된다. 이렇게 공급한 전력은 향후 서산시 및 태안군의 전력량 수요 증가에 대비해 쓰인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154kV로 송전하는 방식 또한 국내 최초로 시도,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충분한 사전 검토로 완벽 기어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 공사는 ▶부지 평탄화 작업 및 배수와 도로 작업 ▶태양광 모듈 설치 ▶인버터, 변전설비, 송전선로 등 전기설비 구축 ▶에너지 저장 설비(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 등 크게 네 공정으로 나뉜다. 현재 공정률은 57.26%로, 태양광 모듈 설치율 80% 완료하고 지난달부터 전기설비 입고 및 설치를 실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ESS 구축에 들어가며 준공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ESS는 태양광 발전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주간에 태양광 발전으로 배터리를 충전한 후 야간에 발전 및 송전할 수 있

는 설비다. 현장은 우리 회사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이기 설계 및 시공 데이터 부재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협력업체 선정 조기 완료, 설계 최적화, 자체 적기 투입, 공중간 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철저히 관리했다. 실제 착공 전부터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 선정을 완료해 인허가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했고, 태양광 모듈의 기초를 당초 콘크리트 패드 방식에서 스크류 파일 방식으로 변경해 공사의 속도를 높였다. 발전소 내 케이블 공사 또한 지중선로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해 공기를 단축했다. 가장 난도가 높은 공정은 한국전력 안전 변전소까지 154kV의 지중 송전선로 13km 중 안전면대교를 횡단하는 해저 지향성 압입공사다. 바다 한가운데 지반을 수직 굴착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 지표면에서 해수면 아래 22-25m까지 약 500m를 굴착한다. 국내 지중 송전선로 해저 지향성 압입 공사 중 최대 규모로, 공법 선정이나 경로, 가설작업장 선정 등 설계 확정에 장시간이 소모됐다. 특히 인허가 획득을 위해 여러 관할 관공서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쳤고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은 작업의 난이도뿐 아니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탈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대책을 준비 중이다.

### 70년 노하우로 국내 및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 이끈다

서산 태양광 발전소 현장은 인접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잘못 알려진 태양광 모듈의 유해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중 송전선로 공사를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자체 공사이며 향후 20년 동안 우리 회사가 직접 발전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품질 시공은 물론 향후 유지·보수까지 문제없도록 주민들과 신뢰를 다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두말할 필요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에만 약 1.2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는데 이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신규 설치 규모 7위다. 또한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이 대두되며 따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증가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플랜트사업본부 내 에너지사업부에 신성장에너지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자회사인 현대코에너지와 손잡고 세계 태양광 시장의 판권을 넓혀가는 중등도를 비롯한 아시아, 중남미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나갈 태양광 발전 기술이 현대건설의 정신이 담긴 서산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 인도 정치에는 간디, 경제에는 타타가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150년 기업, 타타그룹

**해외 기업 탐방 ㉔ 타타그룹** 고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도, 그 안에 인도 경제를 주도하는 타타그룹(Tata Group)이 있다. '정치에는 간디가 있고, 경제에는 타타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타그룹은 인도의 보물이다. 글·장영성 <이코노믹 리뷰> 기자

인도의 보물이라 불리는 타타그룹은 1868년 잠셰지 타타(Jamsetji Tata)가 세웠다. 150년의 전통을 가진 타타그룹은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약속은 약속'이란 명언을 남긴 라탄 타타(Ratan Tata) 전 회장이 저소득층을 위해 '타타 나노' 자동차를 300만원에 출시한 일화는 인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다. 타타는 자국 내 시민은 물론 직원도 존중하다 보니 타타그룹 직원들은 어느 기업보다 충성심과 애사심이 강하다. 이는 곧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타타그룹의 총 직원은 70만 명이다(2018년 기준). IT·에너지·원자재·자동차 등 7개 분야 1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다. 상장 기업만 29개나 된다. 그룹의 시가총액은 1447억9000만 달러로 단일 상장 기업으로 환산하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톱 50' 기업 안에 들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타타 컨설팅 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이하 TCS)는 아시아 최대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로 타타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TCS는 얼마 전까지 찬드라세카란(Natarajan Chandrasekaran, 이하 찬드라)이 이끌었다. 찬드라는 1987년 인턴사원으로 타타그룹에 입사해 2009년 TCS의 CEO 자리에 올랐다. 그가 CEO가 된 후 TCS는 IT 외주와 서비스업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를 무난히 극복하고 회사를 급속 성장시켰다. 찬드라의 지휘 아래 TCS는 최근 8년 동안 매출이 연 6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늘어났다. 순이익은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커졌다.

### 인턴사원에서 그룹 총수까지

TCS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찬드라는 지난해 1월 타타그룹 신입 회장으로 선임됐다. 타타그룹의 7번째 회장이다. 특별한 점은 타타 가문의 종교적 배경인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아닌 힌두교 신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장직 선임 투표는 만장일치였다. 그룹이 찬드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찬드라는 2016년 10월 갑작스럽게 해임된 사이러스 미스트리(Cyrus Mistry) 전 회장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전임 회장 미스트리는 기존 타타그룹의 사업과는 동떨어진 건설업 출신이다. 타타 가문 밖에서 처음 영입된 아일랜드 국적 인도인 미스트리는 공격적인 경영 방식으로 지탄받았다.

반면 찬드라의 경력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격이었다. 그룹의 실세이자 1990년대 초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 동안 그룹을 이끌었던 보수 인물 라탄 타타에 비해 조용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계에서도 두루 환영받는 인사다. 그는 디지털 사업 분야에 확실한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타타그룹 내에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경영 철학을 깊이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마추어 마라토너 선수였던 그는 특유의 뚝심 있는 지속 경영으로 그룹 경영진에게 지지를 받아왔다. 그룹 지주회사인 타타선스 측은 "찬드라는 모범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그가 타타그룹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 믿는다"며 그를 지지했다. 그의 동료들은 찬드라를 원칙에 충실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가한다. 고객들도 그를 친절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많은 이가 TC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가 고객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 일대일 미팅을 고집한 것을 꼽고 있다. 찬드라는 고객들을 최대한 자주 만나기 위해 종종 비행기에서 잠을 자며 1년에 200일 정도를 유럽·미국·아시아 등지에서 보내왔다.

찬드라는 인도 국민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는 TCS에서 고위 임원들에게 새벽 5시 '팀워크 러닝'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지역 러닝 클럽에 가입했다. 그가 러닝 클럽에 가입하자 인도에 마라톤 붐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타타그룹 기대 속에 찬드라는 그룹 회장에 선임된 지 한 달 만에 타타선스 회장까지 오른다. 63년생인 그는 올해 55세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가총액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굴지의 인도 그룹 총수로 등극했다. 그러나 두터운 신뢰만큼 찬드라가 회장 자리에 앉으면서 짙어진 책무는 무거웠다.

### 문제 하나씩 해결하며 내실 키워

타타그룹의 주요 5개 사업은 사업 규모는 커도 재정에 처한 계열사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인디언호텔은 5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 철강회사인 코르스 그룹과 고급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랜드로버 등을 인수합병(M&A)하며 급격하게 몸집을 키워놓은 상태였다. 반면 대표 자회사였던 타타스틸은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매각을 시도해왔다. 회사 업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분산관리 되다 보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찬드라는 이를 거침없이 해결해 나갔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손을 댄 것은 골칫덩이인 타타스틸이다. 찬드라는 코르스 그룹 인수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는 타타스틸의 영국 특수강 사업을 1억 파운드(약 1420억원)에 리버티하우스



그룹에 팔았다. 또 지난 6월 타타스틸의 유럽 사업을 독일 철강업체 티센크루프와 합병했다. 현재 타타스틸은 1년 전보다 순이익이 5배 증가했으며, 연 매출 170억 유로(약 22조원)에 이르는 유럽 2위 규모의 초대형 철강사로 등극했다.

찬드라 회장의 보배인 TCS 또한 행보가 남다르다. 찬드라 회장에 이어 선임된 라제시 코피나단(Rajesh Gopinathan) CEO는 TCS를 지난 4월 시가총액 1000억 달러(108조원)짜리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인도 회사 중 두 번째며, 지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TCS는 1분기에 유럽과 영국에서 각각 19%, 11% 가까이 성장했으며 북미에서는 5% 성장했다. 이외에 타타화학의 주가는 152% 상승했다. 타타자동차도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경영 성과를 거뒀다.

찬드라는 그룹의 출혈을 막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다. 현재 그는 '하나의 타타(One Tata)'라는 슬로건을 내놓으며 단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지고 있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 그는 "좀 더 책임관계를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운영회사들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 인도인의 자부심, 타타그룹

사회공헌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타타그룹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창업주 잠셰지 타타와 그룹 회장직을 이어온 여러 후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개인의 부를 신탁에 기부해 그룹 명성을 높였다. 타타는 신탁회사인 '타타신탁'을 운영하는데, 이는 그룹 경영철학의 핵심이다. 타타신탁은 청소년의 기술역량을 선도하는 '인도 과학원'과 암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타타 메모리얼 병원' 설립에 기여했다.

특히 인도 잠셰드푸르(Jamshedpur)가 황무지에서 기업도시로 거듭난 점을 보면 타타가 얼마나 인도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지 알 수 있다. 타타그룹은 허허벌판이던 잠셰드푸르에 타타스틸을 세웠다. 공장 외부에는 학교와 병원, 크리켓 구장, 공공 정원으로 가득 찬 도시의 오아시스를 조성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인도에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도시로 남았다.

찬드라 신입 회장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그가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기업에 투영시킬지, 어떻게 경영수완을 이끌어내 그룹 내 수십 가지 사업을 키워놓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세계와 인도 국민이 타타그룹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 전시장에서 타타모터스의 광고가 나오고 있다. 2 타타자동차 조립 공장 모습. 3 타타 컨설팅 서비스 외관. 4 인도의 저소득층을 위해 출시한 '타타 나노'. 5 창립자 잠셰지 타타. 6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타타그룹의 회장까지 오른 찬드라세카란 회장. [출처: 위키미디어]



강연 동영상 보기



##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오리지널스\*의 놀라운 습관

**TED 강연** @애덤 그랜트 18분 안에 세계 지식이 공유되는 무대 TED강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일종의 재능 기부로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번호 <사보신문>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들의 독창적인 사색 비법을 소개한다.  
정리=강은비 / 참고서적=『오리지널스』

\*오리지널스란 애덤 그랜트(Adam Grant)의 '오리지널스(Originals)', 책에서 나온 단어다. 유일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독창적 리더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실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변을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다. 업무를 미루면서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뛰어난 결과물로 능력을 인정받는다.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업무를 끝냈음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늘 지지부진한 아이디어로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세대 리더로 불리는 '오리지널스'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애덤 그랜트(Adam Grant)의 강연을 들어보자. 애덤은 우리가 그들처럼 '독창성'을 갖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비범한 사람에게만 나온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처럼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오직 비범한 리더에게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창의성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치부하고 자신을 리더의 추종자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가? 『오리지널스(Originals)』의 작가 애덤 그랜트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한다.

###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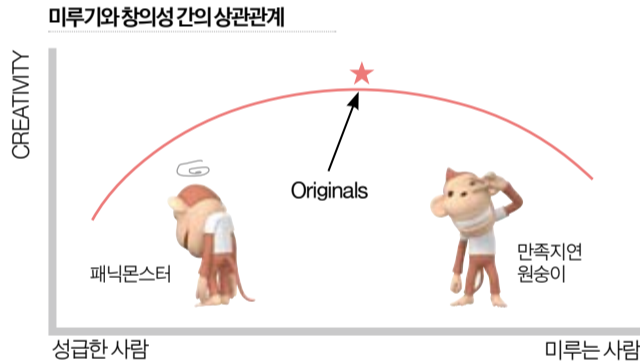
#### ① 뷰자데(Veja de)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뷰자데'란 늘 접해오던 익숙한 것을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혁신과 변화를 위한 창의력이 필요할 때 시각을 뒤집을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뻔한 이야기지만 독창성을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타이핑을 멈추고 다른 방향에서 업무를 바라봐 보자. 예를 들어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실행 방법에 대한 기획서를 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며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쩌면 조금 평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모른다. 변화에 성공한 타 기업 사례를 찾아 스토리라인을 짜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획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생각을 환기시켜야 한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는 전혀 연관 없는 영상물, 책, 최신 트렌드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서 보고 고민할 때 불현듯 찾아온다. 이런 아이디어는 놓치지 말고 메모해서 기획서에 적용해보자.

#### ② 적절한 미루기의 효과

"모레 해도 되는 일을 왜 내일 끝내단 말인가." 모든 것을 빨리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비판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명언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미룰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빨리빨리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을 빨리 해치워 버리는 것의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느린 것에 비해 성실하게 보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번쯤은 공자의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 빨리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라는 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남들보다 빨리하려다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은 없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강연자

애덤 역시 미루기의 효과를 '전략적 지연'이라 표현할 정도로 최근 많은 연구에서 미루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미루기와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는 강연자 애덤 그랜트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두 그룹을 나누어 사업 계획을 쓰게 한 실험으로 '미루기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그룹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5~10분 정도 게임하며 작업을 미루게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게임을 하며 사업 계획서 작성을 미뤘던 집단이 더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미룬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생각해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단, 적절한 시기에 미루기를 멈추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실천력은 기본이다.

#### ③ 부정적인 감정 다스리기

독창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공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워야 한다. 오리지널스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의심한다. 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이런 감정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의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독창적인 사색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확신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아닌 '자신'을 의심한다. 자기 의심은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얼어붙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사그라뜨린다. 하지만 오리지널스들은 '아이디어'를 믿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의심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확인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핵심 비법은 생각의 차이도 있다. 아이디어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아... 망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초안은 원래 별로야.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당연하지"라고 말하며 자신을 믿는 것이다.

#### 왕자를 찾을 때까지 개구리에게 입맞춤하라

창의성이 뛰어난 오리지널스가 생각해서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애덤 그랜트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뿐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남다른 독창성을 지닌 아이디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가 예로 든 런던 교향악단이 선정한 세계 50대 고전음악 목록을 보면 모차르트·베토벤·바흐의 음악 작품들이 그렇다. 평생 바쳐 모차르트는 600여 곡을, 베토벤은 650곡, 바흐는 1000곡 이상을 작곡했다고 한다. 그중 아주 극소수의 작품들이 찬사 받는 것처럼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가 아는 천재 발명가 에디슨도 마찬가지다. 1000여 개의 특허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천재로 인정하는 정말 탁월한 발명품은 손에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생각을 하다 나온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객관성을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잃게 되면 눈먼 열정으로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큰 실망을 하고 "역시 나는 안 돼"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는 미국의 만화가 스콧 애덤스(Scott Adams)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실수가 건질 만한 실수인지 식별해내는 시각이 비결이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는 잠정만 눈에 들어와 한계와 단점을 무시하게 된다. 만약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식별이 어렵다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다. 동료의 판단은 좁은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한 명의 천재 리더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시대는 갔다. 조직을 살리는 창의성은 여러 명의 평범한 사람이 모였을 때 나온다. 독창성은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든지 독창적인 혁신자가 될 수 있다. 애덤 그랜트가 강연에서 말했듯 끊임없이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의심하자. 그러다 보면 분명 자신을 오리지널스로 만들 아이디어가 보일 것이다.



애덤 그랜트 (Adam Grant)

와튼스쿨에서 최연소 중신교수로 임명돼 조직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독창적이고 일상에 적용 가능한 강의는 4년 연속 '최우수 강의평가상'을 받았다. (비즈니스 위크) 선정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25인'으로 뽑혔다.





## 베스트셀러 쓰는 법? 독자를 만들어라 베스트셀러 작가 「강원국의 글쓰기」

**피플 인사이드** 2014년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로 소위 대박이 났다. 강연만 해도 충분히 먹고 남을 상황. 강원국은 진짜 쓰고 싶었던 책을 쓰기로 한다. 자신의 이름을 세 번째 책 『강원국의 글쓰기』. 대통령, 회장님의 글은 고스트 라이터로 썼다면 이번 게임은 다르다. 기업에서 17년, 청와대에서 8년, 출판사에서 3년, 글로 밥벌이를 하면서 터득한 글쓰기 노하우를 집약했다. 글 좀 읽는 사람들은 안다. 강원국처럼 쓰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글 = 엄지예 <채널에스> 기자 / 사진 = 이관형

이번 책의 카피는 '남과 다른 글쓰기'다. 남과 다르게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한 줄로 답한다면?

나다운 글을 써야 한다.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가능한 글쓰기다.

강원국의 아내가 모든 글의 첫 독자이자 열렬한 지지자였다. 18쪽에 이렇게 썼다. "그렇다면 글쓰기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내 글에 호의적인 사람 옆에 두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생각난 분한테 당장 전화했다. "내 곁에 오래 있어 달라"고 청했다.

(웃음) 중요하다. 글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은 "성공한 조직은 칭찬과 긍정이 부정적 반응보다 세 배 정도 많다"고 했다. KBS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을 보면 서양과 동양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에 대한 생각 차이를 실험을 통해 비교했는데, 서양인은 더 잘하기 위해 힘쓰는 데 반해, 동양인은 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글에는 네 가지 반응이 따른다. 지적, 위로, 격려, 칭찬이다. 네 가지 모두 선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글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역시 칭찬이다.

"글 쓰는 사람은 태생이 관중"이라고 했다. 이 문장을 읽는데 통쾌하더라. 끝끝내 "나는 관중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멀미가 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런데 이 욕구를 너무 누르고 산다. 나는 그동안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누군가를 위한 글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반작용도 있는 것 같다. 말과 글에 관한 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 않

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집단에 묻어가는 태도로만 살 수 없다. 말에서 이제 글로 넘어간다. 누구라도 글을 쓰고 잘 쓸 수 있는 세상이다.

이번 책에서 가장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글쓰기 노하우는 '독자의 마음을 사는 법'이다. 285쪽에서 "독자를 읽고 독자 비위를 맞추 줄 아는 사람이 작가"라고 했다.

직장 글쓰기를 예로 들어보자. 상사에게 관심이 있고 상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글의 독자인 상사의 취향과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상사와 가깝지 않으면 상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상사에게 자신의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할 기회가 없으니, 상사가 보고서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글재주가 있고 아이디어가 많아도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독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도 했다.

글은 독자가 읽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독자는 내 글을 읽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내 글의 주인이 된다. 독자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설득당하고, 감동하는 글이 좋은 글이다. 이것이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상사의 안테나에 잘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나? 마찬가지로 독자 앞에서 쓰려고 자꾸 노력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 혼자 쓰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독자를 앞에 두고 쓰는 게 좋다. 왜 혼자 쓰려고 하나? 글쓰기는 2인3각 경기다.

"글도 기교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며 진정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한다"(317쪽)고 했다.

강연을 가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잘 살아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막 감동한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 왜 좋나? 그 사람이 좋기 때문이다. 그분처럼 살고 싶고, 따르고 싶기 때문에 좋은 거다. 좋아하는 사람의 글은 어떻게든 좋은 거다. 좋아하는 사람의 글은 다 좋은 거다.

(웃음) 정답이다.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 글은 좋아진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면 쓸 거리가 생긴다. 이오덕 선생님이 "삶은 곧 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어찌 보면 사는 것과 쓰는 것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글쓰기의 최선』을 쓴 은유 작가가 말했다. "비밀글만 쓰면 늘지 않는다." 『강원국의 글쓰기』에도 같은 결의 이야기가 나온다.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 문장을 읽고 보니 강원국 이다시 보이더라.

어쩌면 이 문장이 『강원국의 글쓰기』의 핵심이다. 혼자 일기를 쓰고 SNS 비공개로만 글을 쓰면 글은 늘지 않는다. 독자를 두고 써야 글이 는다. 독자를 내 편으로 두고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자를 내 편으로 두려면 특정 독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막연한 독자는 없는 것과 똑같다. 독자는 중력 같은 존재다. 마음껏 활개 치고 싶을 때, 나를 자꾸 당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중력이 있으니까 글을 쓸 수 있지, 진공 상태라면 글을 쓸 수 있겠나?

온라인 글쓰기는 호객 행위라고 했다. 독자는 즉각적으로 감응하거나 응답할 수 있는 글에 반응한다고.

온라인 독자는 다이제스트를 좋아한다. 정리해 줘야 한다. 또한 패러디를 좋아한다. 아포리즘을 즐긴다. 명언이나 멋진 구절, 랭킹, 유행, 영상을 좋아한다. 무엇보다 핫해야 한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한동안 공감이 '뿡'이었다. 메아리 없는 글쓰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썼다. 누가 읽지 않아도 축적된 자료는 내게 소중한 추억이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읽는 사람이 있으면 써야 한다. 그 사람에게 고마워서라도 써야 한다. 회사에서는 니즈(needs)로 썼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은 원츠(wants)로 쓴다. 언젠가 내가 소설을 쓰면 그런 라이크스(likes)다.

칼럼이나 기사를 읽을 때, 인상이 찌푸러지는 글이 있나?

첫째, 자기도 잘 모르고 쓴 글일 때. 둘째,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 때, 즉 중언부언할 때. 셋째, 문장이 느껴질 때. 문장에 지나치게 멋을 부렸거나 화장을 진하게 한 글을 보면 좀 싫다.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쥐어짜면 최악이다. 유사민 선배 같은 분이 쥐어짜면 멋있는 글이 가능하지만.

글을 잘 쓰고 싶은데, 도저히 해답을 못 찾겠다는 사람에게. 딱한마디만 해준다면.

하루에 세 줄만 써봐라. 내 삶이 바뀐다. 이걸 틀림없다. 글을 잘 쓰기 위해 쓰라는 게 아니다. 뭐가 됐든 세 줄이라도 써봐라. 뭐라도 한 번 써봐라. 인생이 달라진다.

『강원국의 글쓰기』를 읽어볼 작정을 한 독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 책은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하는 책이다. 곳곳에 글쓰기 노하우가 숨어 있다. 총 40가지다. A4 한장을 책상 위에 놓고, 40가지를 찾아 써봐라.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은 거다. 힌트를 몇 개 말하자면 물음표로 써라, 기억과 상상으로 써라, 습관으로 써라 등이다.



**계동산책** 사이폰 커피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그린마일 커피로 가자.

## 사이폰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 그린마일커피

북촌에 사이폰 커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생겼다. 바로 그린마일커피 북촌점. 재동초등학교에서 감사원으로 향하는 가회동 소나무길 중반쯤에 위치한 이곳의 자랑은 바로 사이폰 커피. 사이폰 커피는 핸드드립에 비해 커피 고유의 풍미를 오롯이 즐길 수 있어 애호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지만, 복잡한 추출 방식과 어려운 유지·관리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다.

이곳의 대표인 최창해 바리스타는 한국 대표 '사이포니스트(Syphonist)'로 한국커피협회의 세계대회 운영팀장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는 전문가다. 함께하는 바리스타들도 오너의 지휘 아래 기술을 연마해 정제된 사이폰 커피를 제공한다. '그린마일'이라는 이름은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에서 따온 것으로 커피에 힐링을 더한다는 대표의 커피철학이 담겨있다. 최상위 등급인 스페셜티(Specialty)와 프리미엄(premium) 원두만 고집해 퀄리티 좋은 커피를 만든다. 또 커피의 원

두 농장과 지역, 특징을 담은 카드를 준비해 고객이 커피의 브랜드 스토리를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린마일라떼와 방콕소다도 시그니처 메뉴다. 그린마일라떼는 직접 만든 말차소스에 우유와 에스프레소샷을 넣은 음료로 커피의 깊은 풍미와 함께 진하고 씹싸름한 녹차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커피가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자체 개발한 방콕소다는 콜라의 주원료인 넛맥시럽에 패션후르츠를 넣어 제조한다. 산도가 높아 새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난다. 향신료 덕분에 마치 동남아 음식을 먹는 듯한 이색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북촌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루프톱이다. 맑은 하늘과 한옥마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시원한 가을의 시작, 운치 있는 소나무 길을 걸어 그린마일에 들러 보면 어떨까.

글=황선영 / 사진=이슬기



1 시그니처 메뉴인 방콕소다와 애플베리소다. 2 사이폰 커피를 추출하고 있는 최창해 대표. 3 사이폰 커피. 4 북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루프톱.



### 그린마일커피 북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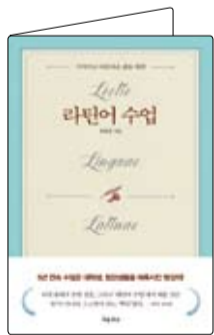
주소 서울 중로구 북촌로 64  
영업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02-744-2404

현대건설 사우들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시  
아메리카노 1+1  
(10월 한달간)

## 문화 책갈피

대학과 유수기업에서 화제가 된 명강의가 책으로 재탄생했다. 퇴근길 나만을 위한 수업에 흠뻑 빠져보자.

### 책으로 듣는 수업! 퇴근길 나만을 위한 강의 5



**라틴어 수업**  
저자 한동일  
출판사 흐름출판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이자 가톨릭 사제가 된 한동일 교수가 2010년부터 서강대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옮긴 책이다. 단순한 어학수업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제도, 유럽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한다. 책은 삶과 죽음, 관계와 태도를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 교수의 강의는 서강대 최고의 명강의 중 하나로 선정됐다.



**로봇시대에 불시착한 문과형 인간**  
저자 다카하시 도루  
출판사 한빛비즈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문과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철학 교수의 '사이보그 철학' 강의가 바탕이 된 책이다. 저자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인간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다른지 물으며,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와 유튜브 등 익숙한 사례를 활용해 이해를 도운 것도 장점이다.



**수학이 필요한 순간**  
저자 김민형  
출판사 인플루엔셜

한국인 최초 옥스퍼드대학 정교수이자 세계적인 수학자 김민형 교수. 그가 인간의 사고능력과 우주에 대한 탐구를 총 7개의 강의를 통해 풀어냈다. "머리가 굉장하긴 좋은 여자는 대체로 자기보다 머리가 더 나쁜 남자와 결혼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등의 재미있는 질문과 실제 예시로 수학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하는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수학의 매력에 푹 빠질지도 모른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투어트 다이아몬드  
출판사 8.0(에이트포인트)

세계 최고 MBA 와튼스쿨에서 협상코스를 강의하고 있는 스투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20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의 명예를 차지한 자신의 강의를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협상을 위한 기본적 개념과 실생활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협상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타파한 이 책은 전 세계 구글 임직원 '공식 교육프로그램',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추천하는 CEO 필독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최고의 선택』**  
저자 김형철  
출판사 리더북

최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경영자라면 반드시 부딪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철학자의 눈과 입으로 풀어 나가는 기발한 질문 수업이다. "팀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저자의 가이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저자가 연 100회 이상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기업 교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기에 그 공감도와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



## 추석 연휴, 가을 햇살 즐기며 가볼 만한 곳

추석 연휴에 방문하면 좋을 국내 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한결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인생샷까지 건져보자. 정리=강은비 / 사진=정선군, 양주시, 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

### 은빛물결이 장관인 민등산 억새꽃축제

전국 5대 억새꽃 군락지 중 가장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민등산에 가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풍광을 만날 수 있다. 해발 1118m 위에서 하얗게 일렁이는 수십만㎡의 억새꽃이 장관을 이룬다. 해질 녘 산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에 석양으로 물든 황금빛 억새 물결까지 볼 수 있다. 증산초교, 능전마을, 삼내약수, 화암약수에서 시작되는 4개의 코스가 있으니 원하는 곳에서부터 걸어보자. 축제 기간에는 가요제,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으니 스케줄 확인을 잊지 말 것.  
장소 강원도 정선군 민등산 일원 기간 9월 21일(금)~11월 4일(일)



### 가을정취 가득한 고양 가을꽃 축제

다채로운 가을꽃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일산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된다. 국화, 백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가을꽃으로 한껏 꾸며진 아름다운 야외 정원은 물론 '가을 소나타'라는 주제로 꾸며진 실내 전시관도 있다. 꽃과 어울리는 팝페라, 클래식 연주 등 다양한 공연도 매일 펼쳐질 예정이니 추석 연휴 하루쯤 시간을 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보자.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기간 9월 22일(토)~10월 9일(화) 오전 10시~오후 7시 입장권 성인 5000원, 어린이·65세 이상 3000원

###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은 로맨틱한 핑크빛 양주 나리공원

보기만 해도 설레는 핑크빛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은 핑크물리의 계절이 돌아왔다. 경기도 양주 나리공원에 가면 약 1만㎡ 부지의 핑크물리와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홍 군락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변치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천일홍과 하늘하늘한 핑크물리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가족·연인과 함께 인생샷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장소 경기도 양주시 나리공원 입장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65세 이상 무료

1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민등산 억새꽃 축제. 해 질 녘에 오르면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2,3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고양 가을꽃 축제.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도 펼쳐진다. 4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홍 꽃밭을 만날 수 있는 양주 나리공원. 핑크물리는 물론 붉게 물든 댕싸리도 볼 수 있다.